

드림꽃편지 633

2021.10.23. 상강호

<http://cyw.pe.kr>

햇볕같은집

남의 떡이 더 커보인다

사랑하는 자매님 형제님 안녕하세요?

고속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디선가 우렁차게 코고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지 궁금해서 살짝 살펴보니 중간쯤에 앉은 스님이십니다. 아주 입까지 반쯤 벌리고 세상 모르는 표정으로 꿀아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스님의 처지가 이해되었습니다. 아마도 '새벽불공' 때문일 것입니다. 스님들은 새벽 3시에 세상을 깨우는 의식으로 종을 치고 경을 암송합니다. 아무리 천하장사라도 그렇게 일찍 일어나면 낮에 한차례쯤 밀려오는 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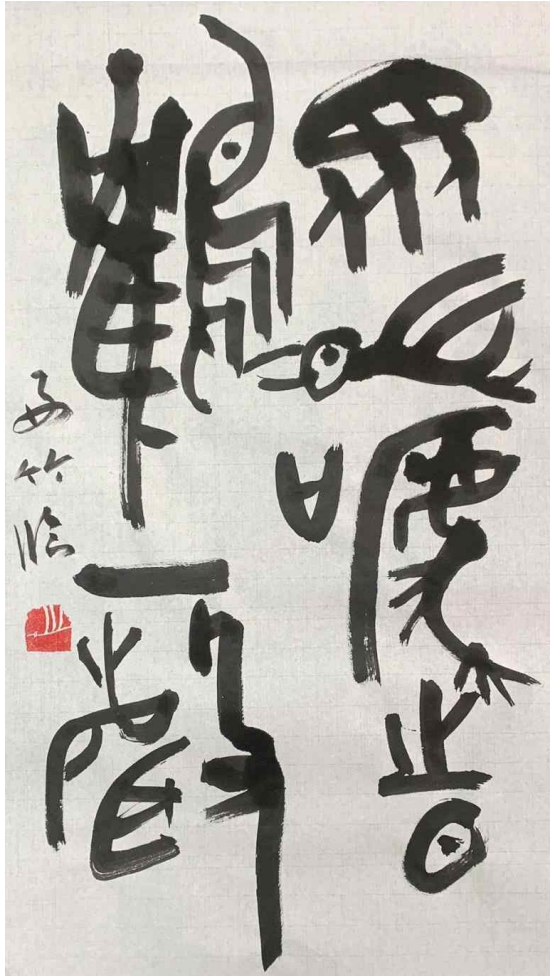


제 친구 아무개 목사님은 하루 중 어떤 시간이 되면 굉장히 까칠해져서 신경질을 냅니다. 그때는 그냥 건들면 안 됩니다.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새벽기도 하느라 잠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떤 시점이 되면 신경이 날카롭고 짜증이 납니다. 목회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은 '하루도 안 빠지고 날마다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입니다. 주로 나이 많아 아침잠이 없는 노인분들이 안 빠지는데, 목회자가 어찌다 하루라도 새벽기도를 빠지면 "목회자가 되어가지고 어찌고 저찌고.." 짜증나는 말을 만들어냅니다.

제가 청년 때 청년회에서 특별새벽기도를 인도했습니다. 평소에 밤에 늦게 자기 때문에 잠이 많은 청년들이 새벽에 일어나 교회에 온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신학대학에 가기 위해 준비중이었는데 심각한 표정으로 "새벽기도 때문에 나는 아무래도 힘들 것 같아..."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나 직업을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의 처지가 되어 보기 전에는 그 사람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 남의 입장이 되어 보고자 노력하는 최용우 올립니다.



잠새들 지저귐 때
학이 한 번 크게 우네.
(衆鳥啼時鶴一聲)

©예장 이준우

고무신을 신는 이유

내가 고무신을 신고 다니는 이유는
값이 싸서도 아니고
신고 벗기가 편해서도 아니고
조상님들이 신던 신발이래서도 아니다.
내가 고무신을 신는 데는 아무 이유가 없다.
그냥 나는 고무신을 신는다.
내가 이유 없이 고무신을 신는 이유는
조금이라도 저 강물을 닦고 싶어서다.

강물이 왜 저렇게 바다로 바다로만 흐르는지,
그 이유를 알면 어디 대보아라,
강물한테는 바다로 흐르는 이유가 없다.
그냥 강이니까 흐르는 것일 뿐이고
그 끝에 바다가 있을 뿐인 것이다.
내가 고무신을 신는 데는
그래서 아무 이유가 없다.

©이현주/ 목사, 동화작가



회개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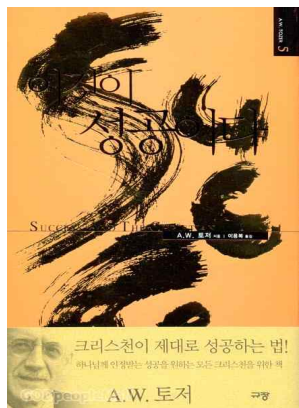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사흘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미워서, 보기 싫어서, 악해서 한번 당해 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어려워 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
아마도 주님은 더 많이 아파 하고
더 많이 고통스러워 하고
더 많이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십자가를 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코로나19를 주셨습니다.
“애야, 불평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질투에서 돌이켜 정결해져라.”
마스크도 아니고 손소독제도 아닙니다.
지금도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보혈의 피를 흘리고 계십니다.
“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손제산 목사 (은퇴 목사)

아파트 경비원으로 첫날 근무하는데 아파트 관리소장님이 왕년에 목사님이 셤다며 할머니들에게 인사를 시킵니다. 그 후 할머니들은 저를 ‘목사님 아저씨’라고 부릅니다. 어린 공주님도 배꼽 인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저씨 안녕 하세요?” 은퇴 후 새로 생긴 이름 ‘목사님 아저씨’ 거, 괜찮은 것 같네요.

이것이 성공이다



토저 마이티 시리즈 5
A.W 토저 지음/이용복 옮김
271쪽 11,700원 규장 2005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여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누가복음6장38절

1. 지불할 대가

예수님을 깊이 알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아름답고 귀한 일이지만, 반드시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과 그저 그런 관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대가는 ‘나쁜 것’을 버리는 것, 그리고 ‘좋아하는 것’도 버리는 것입니다.(빌3:7) 왜냐하면 예수는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2. 너무 많다

우리에게는 우상이 너무 많습니다. 신학도 너무 많고, 교파도 너무 많고, 교단도 너무 많고, 교회도 너무 많고, 제도도 너무 많고, 교리도 너무 많고, 목사도 너무 많고, 제각각 자기의 옳은 것을 주장하는 소리가 시끄럽다 보니 정작 ‘내가 너의 마음에 홀로 조용히 거하고 싶구나’ 라는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3. 땅 속에서

페넬롱(프랑스 왕실 목회자)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땅속 깊은 곳에서 광부가 일하는 것과 같다. 광부들이 땅속 깊은 곳에서 금, 다이아몬드를 캐지만 땅 위를 걷는 사람들은 자기의 발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모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금과 다이아몬드를 캐십니다.

4. 영적 성공의 삶

영적 성공의 삶은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을 버리는 삶입니다. ‘영적 성공’은 내 가

죽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발버둥 치는 짓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교회 사업이나 개인 사업의 번창을 도모하는 짓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영적 성공의 삶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조용히 거하시면서 나에게 역사하는 삶입니다.

5. 게으름뱅이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나’(잠13:4) 어떤 성경은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기만 한다’로 번역했습니다. ‘게으름뱅이’를 ‘슬러거드(sluggard)’라고 하는데 ‘민달팽이’입니다. 민달팽이가 얼마나 느린지 10년을 기어간다고 해도 고작 16m를 갈 뿐이라고 합니다.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기만 합니다.

6. 심은 대로

축복도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고, 저주도 이유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모든 것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방식, 행위, 사상, 삶의 태도들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자리를 내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겠지만, 하나님을 오히려 내 삶 가운데로 끌어들이면 그것이 바로 도덕적 타락의 시작입니다.

7. 구원과 영광

구원의 목적은 내 마음에 즐거움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된 나의 가치관을 바로잡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히려 하나님을 높이고 나를 티끌만도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에게 풍성한 영적 만족을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티끌이 되지 않으면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8. 내 마음을 내놓고

세상 사람들은 더 큰 차와 더 큰 집을 위해 목숨을 내놓고 일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위해 무엇을 내놓고 일하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나의 나라’가 먼저 내 밖으로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의 보좌를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본래 그것은 그분의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9. 법률적 관계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는 아빠와 법률적으로 부자(父子) 관계가 되어서 아버지의 성(姓)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하나님과 법률적으로 부자 관계가 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엡1:4-5)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다.

10. 생명적 관계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생명적 관계가 성립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가지가 생

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포도나무와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입니다.

11. 의지적 관계

나의 의지(意志)가 하나님의 의지를 온전히 따르는 관계를 '의지적 관계'라고 합니다. 나는 성경공부, 기도, 영적 체험, 성령의 조명(照明)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육적인 관계'로 머물지만 순종하면 의지적 관계로 바뀝니다.

12. 지성적 관계

내가 회심할 때 나의 의지와 지성에 근본적인 변화가 옵니다. 그것은 내가 예수님 처럼 생각하고, 성경적 가치관에 따르는 사고를 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은 나도 미워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은 나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지성이 기독교적, 성경적으로 바뀌는 것이 '영적 성숙, 성공'입니다.

13.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다

'여호와와는 광대(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시40:16) 하늘의 별은 사실은 지구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지만 우리 눈에는 너무나도 작게 보입니다. '여호와와는 광대하시다'는 말은 '하나님을 큰 하나님으로 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크게 드러나면 하나님은 상대적으로 작아지고, 하나님이 크시려면 인간이 작아져야 합니다.

14. 육신을 십자가에 못박으라

육신을 억제하라는 말의 뜻은 내 몸을 굽기거나, 못이 박힌 침대에 눕혀서 괴롭히라는 뜻이 아니라, 나의 자아, 옛사람, 내 안의 악(惡)을 죽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교만, 비열함, 분노, 색욕, 다툼, 욕망, 미움 같은 내 안에서 나오는 나의 자아를 내 의지로 절제하라는 말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는 뜻입니다.

15. 단순하게 살라라

사람들은 너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고, 너무 많이 알고, 너무 많이 보고, 너무 많이 듣고, 너무 많이 먹고, 너무 많이 돌아다닙니다. 인생은 중심이 있고 주변이 있는데, 중심에 집중하는 삶을 살아야 반듯하게 살아집니다. 주변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면 흐트러진 삶을 살게 됩니다. 단순하고 단출하게 사는 것이 좋습니다.

16. 경이로움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지으신 것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운 경이감(驚異感)을 느낍니다. 아름다운 저녁놀에 물든 노란 세상을 바라보며 자본주의 세상은 '황금'을 떠올리라고 부추기지만 저는 대자연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란한 모습으로 보입니다.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독서일기 ©최용우

따뜻한 곳

주님!
기온이 떨어지니 물도 쫄쫄 얼고
차도 얼어 시동이 안 걸립니다.
마음속에는 온통 따뜻함에 대한 그리움뿐
따뜻한 아랫목으로 어서 빨리 가고 싶습니다.

주님!
세상이 어둡고 무섭고 살벌해지면
사람들은 마음속에 저절로
따뜻함과 행복이 넘치는 곳을 그리워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따뜻한 곳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최용우 제5시집<찬양하라 내영혼아>中

[덧글]

꿈꾸는자 /예수님의 따뜻함을 더 닮아 그런 따뜻한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고 싶네요..^^ 좋은 시 감사합니다.

하루의 삶 /공감합니다, 교회가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사명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좀, 퍼 갈게요

소철 /추울때에 모닥불 앞에 사람들이 모이듯이 따뜻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성도들이라면 교회는 횃불처럼 타오를 것입니다. 이 땅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길 기도할게요..^^

이교신들은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한다



174.바로의 우주상과 자연적 신학의 관계

바로는 자연신학에 대한 머리글에서 자연 전체를 하늘과 땅으로 나눈 다음 하늘은 공기와 에테르, 땅은 물과 흙, 네 부분으로 구분하고 그것에 여러 원소를 배치했다. 그리고 이 네 부분은 모두 영혼으로 채워져 있다고 주장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스토아학파, 피타고라스도 이렇게 주장했다.

175.야누스와 테르미누스를 두 신으로 나누는 게 마땅한가?

야누스와 테르미누스는 똑같은 신으로, 그 한 얼굴은 시작을 가리키고 다른 한 얼굴은 끝맺음을 가리킨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그는 두 신인가 한 신인가?

176.야누스 우상은 어떻게 풀이되는가

야누스 신은 앞뒤로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구강 모양이 세계의 형상과 비슷하다는 것이다. 바로는 입천장을 그리스어로 우라노스라 하며 하늘을 뜻한다고 한다. 그는 치아 쪽으로 출구가 있고 목구멍 방향으로는 입구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런 야누스의 모양이 영혼이나 영원한 생명과 참으로 무슨 관계가 있던 말인가?

177.우주를 둘러싼 주피터와 야누스의 기묘한 관계

로마 신화에서 주피터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Zeus)와 같은 신이다. 주피터는 신의 우두머리요, 지상과 하늘을 주관하는 최고 신이다. 세계에 있는 모든 것은 어떤 원인에서 비롯되었는데 주피터는 그러한 모든 원인을 다스리는 신이라고 한다. 그런데 바로는 왜 주피터 보다 야누스를 더 앞에 놓는 것일까?

178.주피터의 여러 이름들에서 보이는 모순

주피터는 빅토르, 제우스, 인빅투스, 오페툴루스, 스타로트, 티길루스, 알무스... 그 밖에도 하나하나 늘어놓기가 번거로울 정도로 많은 이름으로 불린다. 각 이름은 주피터가 하는 일을 나타낸다. 하지만 주피터가 하는 일 들 중에 다른 신들이 맡아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다. 그렇다면 다른 신들은 없어도 되는데 신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계속)

영의 세계 1



1. 영의 세계

어떤 분과 대화를 나누는데 “나는 재수 옴 붙은 사람인가 봐. 나는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게 신기할 정도야. 이번에 새로 시작하는 일도 불안해. 마지막으로 내 모든 것을 다 투자했는데 이번에도 안 되면 그냥 죽어야지.”하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분이 이번에도 실패할 것 같습니다. 이미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실패의 영’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떤 일의 성패는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미 결정이 나버립니다. 누군가를 뽑는 선거도 투표함을 열어보기 전에 이미 흐름을 읽는 ‘감(感)’이 있는 사람은 대충 그 결과를 읽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내년도 대통령 선거에 마음을 두고 있는 분이 있는데, 너무 ‘감’이 없는 참모들을 임명하는 것을 보고 대통령까지는 힘들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어둠’이라고 표현합니다. ‘어둠의 세계’는 조폭 영화에 나오는 대사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육의 세상보다 높은 차원의 세계이고, 육의 세상을 지배하는 세계입니다. 육의 문제를 풀려면 영의 세계에서부터 풀어야 합니다. 영의 세계는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머리’입니다. 머리가 나쁘면 몸이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기독교는 철저하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의 종교입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님'께서 역사하는 종교이기 때문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골1:16) (7032)

2. 영적 전투력

한 나라의 힘을 측정하는데 '경제'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국방'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고 요즘에는 '문화'를 기준으로 하기도 합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국방, 문화 모든 영역에서 세계 10위 안에 들어가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 정도면 진짜 '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방력은 세계 5위 수준이지만 '비대칭전력'에서는 북한에 밀리죠. 왜냐하면 북한에는 '핵'이 있습니다. '비대칭전력'이란 그 존재만으로도 싸울 의지가 사라지게 만드는 무시무시한 파괴력을 가진 무기를 말합니다.

오늘날 세계 전쟁은 진짜로 싸운다기보다는 어느 나라가 어떤 무기를 만들어서 보유하고 있느냐 하는 '전투력'에서 그냥 결판이 나버립니다. 미국이 세계 최강인 이유는 '천조국'이기 때문인데, 1년 국방비를 1천조원이나 씩니다.(우리나라는 50조원 쓰고 북한은 5조원 쓴다고 합니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터인데, 영의 세계를 지배하지 않고는 육의 세상을 지배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육의 세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세계가 원인이고 육의 세상은 그 결과입니다. 육의 세상이 그림자이고 영의 세계는 그 실체인데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죠. 영의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그 결과가 육의 세상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육체적 세상살이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의 세계에서 '전투력'이 약해 이미 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세상 나라들도 보이지 않는 '전투력'에 의해 순위가 갈리는 것처럼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의 '전투력'에 따라 이 세상에서의 삶이 결정됩니다. (7033)

3. 완성된 영의 세계

저는 언제부터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모태(母胎)신앙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처럼 예수님과의 극적인 만남 같은 들려줄 만한 간증꺼리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는 이 세상에서는 별로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는 그야말로 '천지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의 세계에서는 지금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마귀에게 속한 나라 사이에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나 마귀에게 속한 나라에서 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십자가 사건으로 이루어 놓으신 '대속의 축복'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계속 마귀의 나라에서 사람들을 빼내어 천국으로 데리고 오십니다. 그것이 보이는 세상에서는 '전도, 선교'라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십자가로 이루어 놓으신 완성된 '새에덴의 세계'입니다. 물리적인 이 세상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행하고 말씀을 믿음으로 들어낼 때, 영의 세계에서는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보이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지만, 이 땅에서 이루어져 미리 받아버리면 천국에서는 사실상 상급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인간들에게 '자유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존중하시기 때문에 천국을 선택하던 지옥에 그냥 남아있던 그것은 전적으로 나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예수를 선택하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새로운 세상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7034)

4. 시간여행과 영의 세계

요즘에 만들어지는 영화나 드라마는 거의 반 이상이 '시간여행'(Time Slip)을 소재로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과거나 미래로 왔다갔다 한다는 설정입니다. 물리학계에서는 타임슬립 자체를 부정합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는 이유를 한 100만가지 쯤 찾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임슬립'이라는 소재가 계속 소비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리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지만, 영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현실 세상에서는 사람이 하늘을 날아다닐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꿈속에서는 새처럼 팔을 펴며 날아다닙니다. 저는 정말 힘들고 고단한 날에는 꼭 40년 전에 배를 탔던 시절로 가는 꿈을 꾸더라구요 그 시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때였나 봅니다. 그러니까 타임슬립(시간여행)은 물리적 세상이 아니라 '영의 세계'를 현실에 반영한 작가의 상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혼'과 '육'으로는 느끼거나 감지할 수 없고 '영'으로만 느끼고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영의 세계는 어떤 이미지가 없습니다. 감(感) 어떤 에너지 같은 것)입니다. 영의 세계의 감이 혼에 도달하면 그것이 각(覺 이미지)으로 변환되고 육체에 도달하면 육체의 오감으로 인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세계는 감각으로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마치 계란처럼 딱딱한 껍데기(육) -흰자

(혼) -노른자(영)의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이 깨어납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영의 세계를 알 수 있고, 영이 더 강해지거나 민감해지면 영적 세계의 현상이 감각(感覺)되어 집니다.(7035)

5.공존하는 영의 세계

<웃으면 복이와요>라는 코미디 프로그램이 재미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개그콘서트>라는 개그 프로그램이 한 20년 웃기다가 지금은 <관찰> 프로그램으로 '웃음 코드'가 넘어갔습니다. 곳곳에 카메라를 수 십대 설치해 놓고 사람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훑쳐보며 웃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관찰하다가 지금은 연예인들이나 외국인들을 한국으로 불러서 좌충우돌하는 모습을 관찰하며 웃거나, 산속에서 혼자 살아가는 자연인의 모습을 관찰하며 웃기도 합니다.

만약에 내가 사는 공간에 수 십대의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어서 나의 사는 모습이 24시간 녹화된다면 어떨까요? 다른 사람이 안 본다고 생각하고 숨어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어딘가에 모두 저장된다면? 심지어 내가 하는 '생각'까지 다 기록이 된다면? 그리고 그것을 언젠가 모두 공개가 된다면? 아마도 그 순간 쪽팔려서 디져볼고 싶을 것입니다.^

영적 세계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우주 어딘가에 '영적 세계'라는 곳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이 실제로 저 하늘 끝 우주공간 어딘가에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천국이나 지옥이라는 '어떤 공간'으로 순간이동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의 세계는 물리적 세상과 동시에 공존합니다. 두 세계가 겹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 세계'는 이 세상서 일어나는 모든 것을 그대로 기록, 기억, 새겨집니다. 내가 하는 말, 행동, 생각... 한 순간도 빠짐없이 모두 녹화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때가 되면 공개가 됩니다.(계20:12) (7036)

6.열리는 영의 세계

영의 세계와 어떻게 접촉하고,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나니아 연대기'라는 소설책에서는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가 '옷장'속 뒤에 있었습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에서는 지하의 숨겨진 공간으로 내려가는 입구가 '책장' 뒤에 있었습니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는 나의 '생각' 뒤에 있습니다. 내 생각과 의도를 아시는 성령님께서 내 생각과 의도대로 문을 열어주시고 방향을 계시해 주십니다.

인간의 마음은 바구니처럼 생겼는데, 그 바구니에는 '생각'을 담습니다. 바구니가 뒤집어졌거나 이미 무언가로 가득 차 있다면 '다른 생각'을 담을 수 없겠죠? 굉장

한 답습질이고 이성적이며 불같은 급한 성격에 마음이 바위처럼 단단하셨던 저의 스승님은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3년 걸리셨답니다. 저는 시인이라 마음이 섬세하고 여립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3일 만에 영의 세계의 언저리에 들어가셨습니다.

영의 세계는 영적 언어로 열립니다. 영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육의 실상으로 느끼고 경험하기 위해서는 영의 언어가 필요합니다. 영의 언어는 ‘인간의 문자’가 아닙니다. 가장 흔하게는 ‘방언’의 형태를 띠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부정한다면 영의 세계로 향한 가장 쉬운 문을 앞에 두고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옛날 목회자들은 산 기도를 자주 다녔습니다. 흔히 소나무 뿌리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도와 열정으로 영의 세계를 열고 들어가 능력을 받아서 ‘능력 목회’를 했습니다. 오늘날에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많아 논리적으로 말은 잘하나 ‘영적 능력’은 부족한 것 같습니다. (7037)

7. 영적 세계와 생각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롬8:6-7) 생각은 혼과 영을 이어주는 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생각의 문밖에서는 ①내 생각(육신에서 나오는 생각) ②마귀가 주는 생각 ③하나님의 생각이 문을 두드립니다. 어느 생각을 안으로 받아들이느냐는 내가 결정을 합니다.

어떤 생각을 마음 안으로 들이느냐에 따라 그 생각이 다음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영속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들어오는 생각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생각만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①실제 귀로 듣거나 ②마음의 감정으로 듣거나 ③생각으로 듣습니다. 거의 대부분은 생각으로 듣습니다. 생각으로 듣는다는 것은 실제로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생각을 넣어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을 악한 쪽으로 선택하면 마귀가 주는 계시나 능력을 접촉하게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생각과 영의 생각을 선택하면 자기도 모르게 영적 세계를 감지하고 영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은 계시와 은사를 쉽게 받게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는 생각의 방향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아무리 옆에서 내 생각 가운데 역사하시고 싶으셔도 내가 그쪽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 결국 성령님은 나를 돕지 못하십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악한 생각이 들 때 처음부터 단호하게 쳐 내고, 성령님을 불러야 합니다. (7038)

8.하나님의 생각

나의 마음 앞에 서 있는 생각들 중에 '하나님의 생각'만을 안으로 맞아들이려면 평소에 생각들이 어디서 왔는지 분별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안 좋은 생각들은 두통, 어지러움, 구역질, 우울감, 무기력함과 함께 올 때가 많습니다. 안 좋은 생각은 초반에 가차 없이, 인정사정없이, 조선 최고의 검객처럼 단칼에 쓱 베어버려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요것들이 새끼를 쳐서 점점 커져요.

'언어'에 생각을 바꾸어 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을 입으로 표현하면 그 생각이 힘을 얻어서 더 강력하게 내 속에 자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안 좋은 생각들까지 불러들입니다. 우리 집에 배달을 자주 오는 어떤 분은 습관처럼 'ic' 소리를 내는데 매우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먼저 목소리 톤을 두 톤 정도 높여서 일부러 "깜짝합니다!!"하고 강하고 짧게 소리를 쳤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란 뒤로는 'ic'소리를 안 하더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 즉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게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생각이 내 안으로 들어와 마음에 '착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면 그것이 더 증폭되면서 쑥쑥 자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가장 확실하고 좋은 방법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4:6-7) (7039)

9.영과 혼의 관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육)'을 흠 없이 완전하게 지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살전5:23) 하나님께서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영>혼>육 순서대로 지배하게 만드셨는데, 인간이 타락한 다음에는 '영'은 사망했고, 타락한 '혼'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육'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롬8:7-8)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영이 살아나'(이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게 되었습니다.

힘이 더 쎈 '영'이 살아났으니 그동안 '육'을 다스리며 양아치 노릇을 하던 '혼'은 이제 디진 것이죠 ^^ㅎㅎ 그런데 괜히 양아치가 아니죠. 곧 죽어도 그동안 '육'을 맘껏 지배하던 것을 뺏기지 않으려고 저항하는 것입니다. 내 '영'은 기도하고 싶은데 '혼'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온갖 핑계와 변명을 하게 한다던가, 그래도 기도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이번에는 기도할 때 졸음, 잡념, 지루함을 주어서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영이 살아났다는 것과 영의 상태는 별개의 것입니다. 영은 살아 있으나 관리를 하지 않아서 약하고 병들고 강박하고 바위처럼 단단한 사람도 있고 반대로 성령 충만한 영은 '강력한 영적 권세'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영력 개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옛날에 목사님들이 밤 기도 가서 소나무 뿌리를 괜히 뽑은 게 아닙니다. 처음부터 '영'이 강한 사람은 없습니다.

영과 혼과 육은 서로 떨어질 수 없는 '나'입니다. 어떤 구성요소가 더 힘이 있어서 나를 지배하느냐의 문제입니다. 당연히 '영'이 나를 지배하는 '영의 사람'이 되어야죠. (7040)

10. 영의 훈련

영은 내 혼의 말과 상태의 영향을 받습니다. 영이 혼으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다면 그것은 영이 혼에 지고 있는 것이기에 영적인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영적 성숙을 이루기 힘듭니다. 그러나 영을 강하게 훈련하여 힘이 생기면 혼이 영에게 순종하고 영을 담는 거처가 됩니다. 혼이 영의 풀마니가 되어서 영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

영을 강하게 훈련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말씀(성경),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특히 방언기도와 성경을 소리 내서 읽는 것(독경)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설교를 많이 듣는 것은 그다 큰 도움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는 영에서 나온 설교는 듣기 힘들고 대부분 '육에서 나온 설교'가 많은데, '육적 설교'는 안 듣는 것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영이 강해지고 민감해지면 영의 세계를 알고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나와 다른 영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내 영이 먼저 알아보고 공격하거나 방어를 합니다. 어느 날은 차를 타고 가는데 갑자기 막 방언이 나오며 누군가를 위해 중보기도가 터져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차를 길가에 세우고 미친놈처럼 소리를 지르며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후에 잠잠해졌습니다. 그 사람과 통화를 했더니 아니나다를까 그 순간에 정말 보호받아야 될 아찔한 일이 있었던군요.

내 영은 항상 성령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영이 성령님을 감지하기 전까지는 성령님도 나를 도우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열심히 영을 훈련하고 민감하게 하여서 시시때때로 성령님을 불러야 시시때때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용우 (7041)



꾸지뽕 (사진:최용우)

꾸지뽕 기억

장날에 할머니가 어디서 꾸지뽕을 한 바구니 따 와서 판다. 참 오랜만에 보는 꾸지뽕이다. 나는 아빠가 어릴 적 돌아가셔서 아빠에 대한 기억이 거의 없다. '월성리'라는 곳에서 살다가 국민학교 1학년 때 읍내로 이사를 갔는데, 그 월성리에 살 때의 기억은 거의 없다.

그런데 어느 날 아빠와 함께 산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아빠가 따 주신 '꾸지뽕'에 대한 기억 하나는 너무나도 생생하다. 한 달에 한 번이나 집에 들어오는 '뜨내기 옛장수' 아빠는 집에 오면 꼭 나무를 해서 쌓아 놓고 또 옛을 팔러 나가곤 했었다. 어느 햇볕이 짙한 날 "나무하러 같이 가자"

도시락을 싸서 산에 갔는데 돌이 많이 쌓여 있는 언덕에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었다. 그때 낮으로 가지를 잡아당겨서 꾸지뽕을 따 주시던 아빠.

깨물면 피처럼 쪽 나오는 즙이 무서웠던 기억이 난다.

냄새나는 고양이

온 동네 고양이가 꼬인다는 이웃의 항의를 받고 고양이가 밥그릇을 없애버린 지 한 달이 지났다. 우리 집이 자신의 영역인 꼬맹이가 아침저녁으로 창밖에서 밥 달라고 애타게 부른다.

마음 약한 딸1호 최중은이가 “지금 있는 사료 떨어질 때까지만 주자. 남은 사료를 어디다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밥을 주고 다 먹으면 밥그릇을 치워버린다.

다른 고양이랑 싸운 것인지 아니면 어디에 짖힌 것인지 이번에는 뒷다리에 상처가 나 있어서 중은이가 날마다 연고를 발라주고 있다.

이제 이틀 후면 중은이가 서울로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진짜로 고양이에게 밥 줄 사람이 없다. 이제는 진짜로 고양이가 스스로 먹이활동을 해야 한다.

쓰레기통을 뒤지고 다니는지 고양이 몸에서 냄새가 독하게 난다. 고양이나 사람이나 참 쉽지 않은 세상이다.



엄마 마음

최중은이가 세종에서의 직장생활을 마치고 드디어 내일 서울로 올라가서 딸2호 최밝은이와 합류를 한다. 밝은이네 집에 방이 2개여서 방 하나를 중은이 방으로 벌써부터 비워 놔었다. 미리 짐을 택배로 올려보냈고 남은 짐만 차에 싣고 올라가면 된다.

아내가 열갈이김치라도 담아 준다며 마침 장날이니 조치원시장에 장 보러 가자고 한다. 지난 장날에도 가서 짜장면 사 먹고 왔는데... 지난 장날보다 오늘은 사람들이 더 많았다.

고등어, 전복, 갑오징어, 꽃게... 해산물을 좋아하는 중은이에게 해산물 요리를 해주고 싶어 해산물 코너에서 서성이다가 발길을 돌린다. 해산물은 냄새가 너무 많이 나서 망설여지는 식재료이다. 지금 아내가 김치를 담가서 통에 담아 놓고, 다른 양념꺼리를 바라비리 챙겨서 싸고있는 중이다.



좋은이 서울

드디어 딸1호가 서울로 올라갔다. 오전 예배를 마치고 좋은이의 집을 차에 싣고 10시에 출발하여 서울 밝은이네 집에 도착하니 낮 1시이다. 밝은이가 “이사하는 날에는 짜장면이지.” 짜장면을 시켜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점심을 먹고 좋은이 방에 무거운 책장과 가구들 자리를 잡아주고 행거 설치, 컴퓨터 랜선을 연결하니 오후 시간이 다 흘러갔다. 저녁으로 카레밥을 시켜서 먹고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재미있게 잘 살아.” 인사하고 집에 내려오니 밤 9시이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앞으로 두 자매가 함께 산다는 것이다.

집에 오니 좋은이 방에 있는 빈 책상에 아내가 재빨리 노트북을 올려놓고서 “앞으로 이 방은 내 방이야.” 하고 먼저 짐을 해 버렸다. 헝...



재난지원금

《순조실록》25권(1822년) 10월 19일 기록을 보면 제주도에 돌림병이 돌아 세 읍에서 죽은 사람이 수천 명이라는 소식을 듣고 임금이 탄식하며 고을 수령에게 ‘구료하라’했다는 기록이 있다. 돌림병이 들 때 왕의 명령으로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는 기록이 꽤 많다.

고로 코로나 바이러스 돌림병으로 어지러운 이 시국에 국가에서 재난지원금을 구료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재난지원금을 신청한 지 이틀 만에 체크카드로 25만원이 들어왔다.

들꽃편지 인쇄비와 발송비로 써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하룻만에 다 나갔다. 내일 장거리 운전을 해야하기 때문에 카 센터 갔다가 엔진오일, 라이닝 교환하고 몇 가지 손 보니 지원금이 바닥났다.

마치 치킨 한 마리를 다 먹고 마지막 한 조각 남은 기분이다.

허망한 재난지원금... 하룻만에 다 나가는 재난이 일어났다.



멧돼지 이 망할...

오늘 부모님 산소 별초를 하고 왔다. 그런데 멧돼지가 봉분을 해집어 놓아서 삽으로 다시 봉분을 만드느라 힘들었다. 도대체 뭘 찾느라고 저렇게 온 산을 다 뒤집어 놓았는지 모르겠다.

멧돼지의 천적인 호랑이가 없어서 멧돼지가 산중 왕이 되어 개체 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 이렇게 피해를 준다는 신문 기사를 본 것 같다. 북한에 서식하는 호랑이들이 숫자가 늘어나서 새로운 서식지를 찾아 남하하고 있다고 하니 빨리 와서 저놈들을 다 잡아 먹어버렸으면 좋겠다.

요즘은 화장을 하는 추세이니 가까운 미래에는 이렇게 별초를 하는 일도 없어질 것 같다. 공동묘지 주변에 벌써 파묘를 한 흔적들이 많다. 외할머니 가게도 흩어져 있는 무덤들을 다 파서 한곳으로 모아 납골당을 만들었다고 한다.



침대 분해

지금까지는 좋은이와 밝은이 중 한 명은 항상 엄마, 아빠와 함께 살았다. 좋은이가 학교 기숙사로 들어갔을 때는 밝은이가 살았고, 밝은이가 학교 기숙사로 들어갔을 때는 좋은이가 다시 집으로 복귀해서 엄마랑 살았다. 밝은이가 서울로 대학교를 가면서 올라가니 대학교를 졸업한 좋은이가 다시 집으로 복귀했었다.

그런데 좋은이가 이번에 서울로 올라가면서 처음으로 딸1호 딸2호가 모두 집을 떠난 것이다. 짐을 다 정리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동안 사용했던 2층 침대와 컬러박스 등을 정리했다. 분해를 해서 대형폐기물 신고를 하고 마당에 내놓았으니 곧 시에서 가져갈 것이다.

“여보, 지금부터는 우리 둘만 살아야 돼.”
갑자기 집이 엄청나게 횡~ 넓어 보인다.
한 사람의 난 자리가 이렇게 크다니... 헉...



방송국 놈들

모 방송국에서 <햇별같은이야기>를 소개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정중하게 거절했다. 방송에 소개가 되면 더 인지도도 생기고 인기도 많아져서 돈도 더 많이 벌텐데... 다른데서는 서로 소개해 달라고 하는데 거절하는 것이 '이상하다'는 것이었다. 나는 그 '방송국 놈들'(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기에 저도 한번 해 봅니다.)이 더 '이상하다'입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야 정상이고 안 들어주면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더 이상한 것 아닌가?

나는 유명해지고 싶은 생각도 없고, <햇별같은이야기>사역이 '돈벌이'가 아니기 때문에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방송에 나간다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겠다. 무엇보다도 그런데 나가면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거짓말로 과대포장'을 하게 된다. 내가 그런 방송의 속성을 모를 줄 알아?

<햇별같은이야기>가 그동안 몇 번 기사화 되었었는데, 그때마다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은 다 삭제당하고 그냥 기자가 듣고 싶었던 말만 글이 되는 것을 보고 다시는 그런 것 안 하기로 다짐했었다.



끝까지 징글징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의 총회소식을 우연히 잠깐 보았다. 논의된 주요 이슈가 '남성 목사 정년 73세 연장 부결', '여성 목사 안수 불허', '젊은 교역자 설교권 불허' 등등이다. 그들에게 침몰해 가고 있는 기독교를 구조할 생각 같은 것은 전혀 없다.

기후 위기 시대에 교회의 역할, 팬데믹 시대에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대한 배려,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교의 역할 등등 현 시대의 과제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한 마디로 지금 기독교를 장악하고 있는 '까만 양복을 입고 있는 중년 남성' 그들은 73세까지 벽에 뚫힐하더라도 은퇴하지 않고 조금 남아있는 단물까지 쪽쪽 다 빨아먹고 가겠다는 것이다. 내가 믿는 기독교가 이런 사람들을 대표 '지도자'라고 모시고 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최용우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山行

▲제519회 비학산215

비학산을 맨발로 올랐다. 야자매트나 휴길은 오르기가 어렵지 않았는데 중간중간 밤나무 아래 밤송이들이 무서운 폭탄이었다. 밤송이를 밟지 않으려고 살금살금 조심조심 걸었다. 밤송이 가시는 한번 찢리면 정말 아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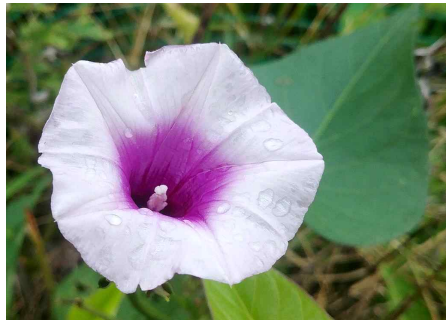


산을 내려 올 때는 할 수 없이 신발을 신고 내려오면서 다음 등산 때 안전하도록 밤송이들을 길가로 차 넣었다. 맨발로 밤송이를 찢다가는 난리 난다. 산을 오르다 보니 어떤 아주머니 두 분도 맨발로 산을 오르고 있었다.

맨발 등산은 '제2의 심장'인 발을 지압하여 혈액순환을 향상시키고 자연치유력을 높인다. 신체 외부 압력에 의해 심장으로 혈액을 돌려보내는 기능이 좋아지고 면역력이 높아지고, 활력이 붙으며, 기분이 좋아진다. 2021.10.1. 맨발등산

▲제520회 비학산216

비 온 뒤라서 그런지 땅바닥이 차갑다. 그래도 신발은 비닐로 싸서 가방 안에 넣고 맨발로 씩씩하게 올라갔다. 신기하게 쳐다보고 웃는 사람도 있었다. 나도 따라서 씩씩~ 웃어 주었다. ㅎㅎ



쑥티고개에 고구마를 다 캔 고구마밭이 하나 있다. 그런데 울타리 밖으로 탈출한 고구마 줄기에 고구마꽃 한송이가 피어 있어서 사진을 찍었다. 고구마꽃은 거름기 없는 산밭에서나 피는 꽃이라 보기가 힘든데, 그 말은 확실히 맞나 보다. 원래 이곳은 감나무만 있던 산인데 어느 날 감나무를 다 베어내더니 밭을 만들었다. 거름기가 하나도 없는 고구마가 생존하기에는 험한 산밭이다. "고구마도 꽃이 피어요?" 하고 묻는 사람도 있다. 고구마도 꽃이 핀다. 2021.10.12. 맨발

▲제521회 전월산(260m)

전월산 맨발로 올랐다. 집 주변에 있는 산들을 최소한 1년에 한 번씩은 올라 주어야 할 것 같아 목록을 만들었고, 그 첫 번째 산이 전월산이다.

10월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기는 60년만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내 생애에는 이렇게 추운 10월은 처음인 것이다.

무궁화공원에 차를 주차하고 맨발로 산을 올랐다. 땅바닥이 엄청 차가워 얼음 위를 걷는 것 같았다. 대학생 같은 남녀 젊은 청년들 한 20여명이 웃고 떠들면서 함께 산을 올랐다. 젊음의 열기와 활기가 느껴져서 좋아 보인다.

정상에서 가지고 간 뜨거운 약초차와 베이글 하나를 먹고 서둘러 내려왔다. 날씨가 따뜻했으면 주변의 다른 산 두어 개 더 올랐을 터인데 그냥 따뜻한(?) 마누라가 있는 집으로 빨리 돌아가자! 추위 추위 추위.....2021.10.16.맨발



▲제522회 비학산217

사람의 발바닥은 정말 신기하다. 그렇게 두꺼운 것 같지도 않은데 5km씩 산길을 걸어도 발바닥에 상처도 나지 않고 돌을 밟을 때만 조금 아프다가 만다. 맨발로 걷다가 신발을 신으면 신발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숨을 신은 것 같다.

비학산 올라가다가 중광사 근처 어느 선산 위쪽에 의자가 하나 있다. 꼭 그 의자에 앉아서 기도를 하거나 물을 마시면서 쉬다가 내려오는 것이 정해진 순서가 되었다. 의자에 앉으면 계룡산 삼불봉, 관음봉, 천왕봉이 보인다. 사람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의자라서 마치 나만 앉는 '내 자리' 같다. 가끔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내려오기도 한다. 계절마다 다른 꽃이 피는 나만의 작은 은밀한 공간이다. 2021.10.19 맨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산행은 2004년 1월 10일 시작되어 1주일에 1회 산행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산행을 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날짜를 맞춰 동행하겠습니다. 오르고 싶은 산이 있다면 불러주세요. 달려가겠습니다. 010-7162-3514 최용우



우리의 만남은 맛남입니다~

①상강(霜降)-서리가 내리기 시작하네!

상강은 된서리가 내려 천지가 눈이 온 듯 하얗게 뒤덮이는 절기입니다. 농촌에서는 온갖 곡식들을 거두어 들이느라 아침부터 밤늦게 까지 들판에서 살게 되는 절기인데, 지금은 기계가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농촌에서도 그렇게 분주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논갈이, 보리 파종, 마늘 심기, 양파 모종 모두 기계로 하니 편한 세상이기는 합니다. 농촌에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노인들만 있으니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 기계들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가을 산은 빨강고 노랑계 단풍이 들어가기 시작하겠죠? 참 좋은 계절에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②표지사진 이야기

오래된 계단에 낙엽들이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등산을 하다 보면 흔히 만나는 풍경입니다. 어디로 향하여 올라가는 계단인지는 모르겠으니 한번 올라보고 싶은 계단입니다. 절집과 가까운 곳에 있는 계단은 스님들이 날이 새기 전 하는 울력으로 깨끗이 쓸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진은 대전 즐거운교회 정혜진 사모님이 폐북에 올린 것을 다음에 만나면 밥한끼 사는 걸로 하고 사용 허락을 받아서 이번 호 표지로 사용합니다.

③도서출판 소식

신간<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저녁밥2> 398쪽 17300원 -10월15일 출간!!
-따뜻한 밥상 시리즈 여섯 번째 책이 나왔습니다.

53. 일출봉에 햇별이 짹하오 207쪽(올컬러) 13600원 -9월17일 출간

52. 일상의 행복 207쪽(올컬러) 13600원 -7월8일 출간

51. 예수님의 말씀들 듣는 산행 534쪽(올컬러) 31800원- 5월6일 출간

50. 내 영혼을 위한 따뜻한 밥상-아침밥2 (399쪽 17300원) -4월13일 출간

인터넷<교보문고>에서 '최용우'나 '책 이름'으로 검색하면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교보문고>를 통해서 현재 38권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살림 드러내기 -2021.9월 재정결산

2021년 9월(1-31일)에 후원하여 주신 분들입니다.(호칭 생략. 가나다순)
고종찬 김광현 김준경 박근식 박기순 박신혜 양은희 양희창 오창근 옥치오 이미라
이재익 이진우 장기갑 정춘화 정효숙 조인훈4 주명혁 지경희 한주환 황성운 무명1
새벽기도 성실교회 실로암교회2 안디옥교회 예사전선교회 한길중앙교회 함안중앙교회
지난달에는 모두 29분이 1,440,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주님! 천사들을 동원하여 햇별같은이야기에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천사로 부름받은 분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늘 생각하면 마음을 울컥하게 하는 여러분들의 정성... 정말 감사드립니다.

○햇별같은이야기가 이 시대의 땅끝인 사이버 세상에서 악한 영들과, 사이버 이
단들과, 유사 기독교로 미혹하는 영들을 대적하여 영적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
록 '인터넷문서선교헌금'을 작성해 주십시오. 우리는 후원자들을 '거들 짝'이라고
하며, 매일 이름을 부르며 중보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다음과 같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가장 크고 첫째
되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관심은 '일' 자체에 있지 않고 '하
나님과 의 관계'에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도록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데 더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다음과 같은 일을 합니다.

①햇별같은이야기<http://cyw.pe.kr>인터넷신문 2021.10월16일 현재 7065호 발행

②문서사역 -월간<들꽃편지>, 주보자료CD, 전도자료 발행

③도서출판 -그동안 54권의 책을 출판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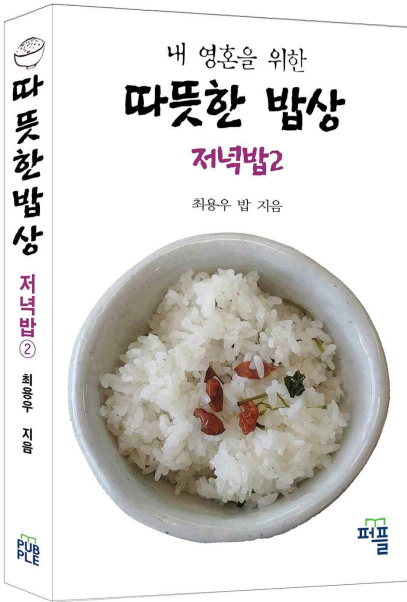
④기도회 -매일 후원자들을 위해 이름을 부르며 기도합니다.

⑤나눔사역 -6곳을 후원합니다.(신학생,문서,인터넷,복방선교,선교사,아동 각1곳씩)

⑥기독교피정숨터(준비)- 기독교에서는 리트릿(retreat)이란 이름으로 피정을 합니
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작은 휴집 한 채를 빌려 <햇별같은집>이라는 이름으
로 피정사역을 하다가 지금은 잠시 쉬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기독교식 피정의집을 지어 사역에 지친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언제든 와서 편히 쉬
어갈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한 장소와 동역자와 물질을 공급받기 위해 기도
하고 있습니다.

●월간<들꽃편지>는 따로 정해진 구독료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원
하는 분들에게 그냥 보내드립니다. 다만, 신청은 반드시 본인이 하셔야 합니다. 지
난호가 더러 남아있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에게 챙겨 보내드리겠습니다.

10월 15일
새로 나온 책



- 〈따뜻한 밥상〉시리즈 발행된 책
- 제1권 아침밥1 - 창세기1장 -역대상11장
 - 제2권 아침밥2 - 역대상12장 -말라기
 - 제3권 점심밥1 - 시편 전체
 - 제4권 점심밥2 - 잠언 전도서
 - 제5권 저녁밥1 - 마태복음 -마가복음
 - 제6권 저녁밥2 - 누가복음 -요한복음

- 〈앞으로 나올 책〉
- 제7권 저녁밥3 - 사도행전-요한계시록

최용우 말씀묵상 시리즈
 398쪽 17,300원 퍼플

가르침이 적혀 있는 이 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라. 끊임없이 외워라. 그 가르침을 놓고 낮이든 밤이든 늘 명상하여라. 가르침을 끊임없이 곱씹어 보아라. 이 책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다 지키고 그대로 실천하여라.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라. 그리하면 네 앞길이 평탄하리라. 모든 일이 잘 풀려서 안 되는 일이 없으리라. (현대어성경 여호수아1:8)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시1:2)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정말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면 복이 오는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복 받는 것을 '돈을 왕창 버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는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확인한 것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 안에 충만해지는 것이었습니다.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값싼 기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내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뜨개질을 하듯 한 땀 한 땀 묵상한 말씀을 책으로 엮었습니다. 단 한 사람이라도 제가 받은 은혜를 동일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루를 마치면서 말씀한 절을 조용히 묵상하는 시간이 참으로 그윽하고 향기롭습니다. 날마다 이런 복된 은총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최용우 저서



설레임

세상을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고 담백하게 그려낸 쉽고 유쾌하고 재미있고 심장이 벌써거릴 만큼 감동적인 시집. 이 세상이 얼마나 가득 두근거리는 설레임으로 가득한 곳인지 깨닫게 됩니다.
6,700원 146쪽 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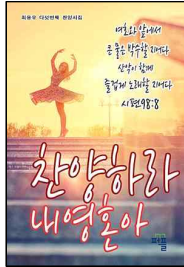
어부동의 아침

그림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고 조용하던 작은 산골마을 어부동에 살면서 호수가를 거닐며 쓴 맑고 밝고 환하고 시원한 시. 기분이 밝아지고 세상이 온통 푸르름으로 가득해집니다.
7,600원 150쪽 펴플



내 영혼이 주를 찬양

주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실제적인 기도들. 그냥 따라 읽다보면 어느새 주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함께 눈물 흘려주심을 느끼게 됩니다.
14,300원 398쪽 펴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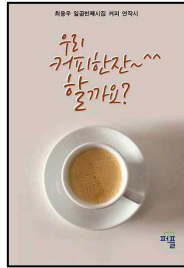
찬양하라 내영혼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을 찬양하는 일보다 더 급한 일은 없나니 오늘도 입으로 말로 글로 아침에도 점심에도 저녁에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 주여 할렐루야!
14,300원 398쪽 펴플



천년을 부른주님 내입에는 찬양만

솔로몬이 일천번제를 드린 것처럼 저는 주님을 부르며 찬양하는 시를 일천편 써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34,600원 1044쪽 펴플



우리 커피한잔 할까요?

한 잔의 커피에는 따뜻함과 부드러운이 한 가득 담겨있네, 한 잔의 커피에는 쓴맛과 단맛이 나를 사로잡네, 한 잔의 커피에 여유와 자유가 향기로 피어나네, 우리 커피 한 잔 할까요?
11,300원 168쪽(컬러) 펴플

☀ 여기에 소개된 책은 <인터넷 교보문고>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샬롬! 들꽃편지는 화려하지는 않지만 주님 앞에 활짝 핀 꽃과 같이 아름답고 향기나는 신앙생활을 하고 싶은 이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행세하고 진짜가 인정받지 못하는 이 시대에, 힘들지만 진실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들꽃편지는 <햇별같은집>에서 발행합니다.

*햇별같은집 <http://cyw.co.kr> *햇별같은이야기 <http://cyw.pe.kr> *들꽃편지 <http://cyw.kr>

*이메일 9191az@hanmail.net ☎ 010-7162-3514(문자로 먼저 용건을 남겨 주세요)

*후원구좌 국민은행214-21-0389-661 농협138-02-048495 하나은행117-891254-32307

*30083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용포곶2길 5-7번지 기독교평정서(햇별같은집) 햇별같은이야기

들꽃편지 제633호 *발행.편집인: 최용우 (1990.1.1.창간)